

도시 다문화 구역의 형성과 소통의 전개방식

- 서울 이태원의 사례¹⁾

송도영*

국문요약

이 연구는 서울의 이태원 지역을 대상으로 소위 '다문화적' 도시구역 내의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그들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였으며, 어떤 방식으로 공존을 위한 상호작용의 전개 혹은 회피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제기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태원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다양한 종족집단, 계층집단, 그리고 개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각기 점유하고 있나? 둘째, 이태원의 다양한 종족집단, 계층집단, 직업집단 구성원, 그리고 단순 방문객들은 이태원이라는 도시구역의 공간 사이에서 어떤 형태로 관계를 맺는가? 셋째,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에서 유추되는 한국사회 내 다문화 공간 혹은 '다문화구역'의 존재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현장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이태원 거리의 상가들과 거주자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국적이 다양화되는 경향에 따라 예전에 비해 더 다국적적이고 다문화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또

* 한양대학교 / 문화인류학

- 1)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KRF-2008-B00071) 이루어졌음. 이 논문을 위한 문헌자료 수집과 현장조사 및 자료분석 과정에서 한양대학교 석사과정의 구단비, 권운, 유일상, 최상일 등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같은 기간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서울역사박물관의 김상수, 김철호, 한유석 연구원 등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많은 상인들과 이태원 방문자들,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이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불어 이 논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날카로운 비평과 도움 말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한 표면적인 인종차별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인종 간, 국적 간, 그리고 계층 간에 이전과 같은 경직된 경계선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다양한 커뮤니티들 간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면서 보여주는 상호작용 방식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호작용의 활발함만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 보다는 오히려 각자의 문화적 영토를 넘어서서 '침범'하지 않는 것이 다문화 지대의 현황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건이자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태원의 다양한 종족, 계층, 종교집단 구성원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최소한의 기능적 필요, 특히 상업적 거래관계와 의무적인 지원 등에 한정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커뮤니티를 모두 아우르는 지역축제나 공동의 이벤트 혹은 공동체 의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보이지 않는다. 또 그것을 위한 별도의 노력도 보이지 않으며 장려되지 않는다. 상호작용을 하거나 교차방문을 하더라도 어떤 정도 이상의 영역이 침범되었다고 느끼지 않도록 간섭을 회피하게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다만 경계 만들기 방식이 '차별'이나 '배제'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목계를 통해 덜 노골적인 실천방식들 혹은 전략을 취하는 것이 관건이다.

비공식적인 실천차원의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이태원 상업공간의 종족적, 국적적, 성적, 종교적 경계선은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계선의 유지와 불간섭의 원칙은 이태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종, 계층, 성, 종교, 기타 문화적 세력 사이에서 갈등을 줄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다문화, 도시, 문화영역, 상호작용, 소통, 공존, 이태원

I. 문제의식 - '다문화' 공간의 존재조건

세계 각 지역에서 나타난 역사상의 주요 도시들을 놓고 볼 때 일반적으로 도시는 기본적으로 멀고 가까운 주변지역 출신인구가 모여든 '이주민'들로 구성된 곳이다(Mumford, 1961: 66-67). 또한 도시에서 이루지는 핵심기능들 대부분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도시 바깥의 농어촌과 다른 지역 중심지인 다른 도시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여러 요소들과의 상호작용, 또는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Cronon,

1992: Le Tourneau, 1949: 27).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의 도시문화는 그 특징으로 '다지역성'과 '다계층성'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다종족적'이며 '다문화적'이다(Sennett, 1996: 164). 그렇지 않은 경우의 도시들은 인구가 많다고 해도 '농촌마을의 생활원리'와 관계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근현대사 과정 속에서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국민국가를 성립시켜야 했던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출신 인구가 도시 안에 많이 모여 사는 것이 새삼스럽게 특별하고 문제가 있는 현상, 즉 일종의 '외세점령'으로 여겨져 왔다. 그것은 한국 근현대사가 겪어온 처절한 식민지 경험과 식민도시의 역사(손정목, 1996: 17-19)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지역인 이태원은 한국의 수도 서울 안에서도 특별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해온 도시구역이다. 단일민족의 정체성 이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있어 이태원은 특히 이곳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경우 "무서운 곳"이거나 "신기한 곳"으로 인식된다.²⁾ 이태원 일대는 용산구의 한 가운데 위치하면서 개항기 이래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6.25이후로는 미국의 영향력이 그들의 군사적 주둔 혹은 식민지적 점령과 더불어 외국인들의 거점으로 형성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21세기에 들어 서울과 수도권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발전하고 있지만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외국인들이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그들의 상가를 만들면서 생활문화지대를 형성해온 비교적 드문 도시구역이다.

그런데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는 외국인들만 거주해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서비스와 상품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활해온 지역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비교적 근거리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상호작용의 역사를 쌓아온 곳으로서,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섞여 살아온, 한국 내에서 드문 소위 '다문화 도시 지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태원 지역 사례를 보면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게 되었다.

2) 이태원을 가보지 않았거나 처음 가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태원이란 지역의 이미지가 어떤지 물었을 때 이런 피상적인 표현들이 다수 나왔다. 이는 일반인 대상의 거리 인터뷰에서도 적지 않게 확인되었다. 무서움 또는 신기함의 이유는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그들이 주인공인 서울 안의 거리라는 데 있었다. 그리고 기지촌으로 발전한 곳이라는 특수성도 거기에 한 몫을 더한다.

첫째,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도시구역인 이태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가? 둘째, 이태원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다양한 종족집단, 계층집단, 그리고 개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가? 셋째, 이태원의 다양한 커뮤니티 성원들과 방문객들은 이태원 공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어떤 문화적 전략을 구사하는가? 넷째,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내의 소위 '다문화 도시구역'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질문은 각기 한 가지씩만 보더라도 매우 벅찬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하나의 연구에서 모두 다루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질문에 주로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세 번째 질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서울의 이태원 지역을 대상으로 소위 '다문화적' 도시구역 내의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그들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였으며, 어떤 방식으로 공존하며 상호작용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그것은 다양한 종족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비교적 한정된 도시구역 내에서 공존하는 것이 대표적인 역사적 다문화 도시들에서도 꽤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이다(Abu-Lughod, 1980: 47; Sennett, 1996: 83-84; Malka, 1991: 107). 그리고 특히 '다문화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는 한국에서 실제로 일정한 도시 공간 내의 다민족,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커뮤니티 생활을 하면서 드러나는 어려움과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관찰하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보기 때문이다(오경석, 2007: 48).

연구 대상지인 이태원 지역은 행정구역상 이태원1동, 이태원2동, 그리고 한남동 일대에 걸쳐있는 지역으로서 이태원 시장이 자리 잡은 이태원로를 가운데 둔 일련의 상가와 일부주택들을 포함하는 곳이다. 지리적으로는 현재 서울시의 중심부인 용산구 남서쪽에 위치하며 남산 남쪽 사면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상가와 주택가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다. 그중 본 연구는 상가와 일부 재개발 대상지역 주택가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특히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공간적으로 교차하고 공유하는 상가지역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³⁾

3) 외국 대사관지와 상류층 고급주택들이 밀집한 지대도 이태원 지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이 연구의 준비작업 과정에서는 현재의 이태원이 다종족적, 다문화적 인구를 수용하게 된 과정을 포함한 공간형성 과정을 파악하고자 했다. 본격적인 작업으로는 문헌검토와 현장 참여관찰 및 인터뷰들이 진행되었다. 이중 특히 현장 참여관찰 기록들은 아직 문헌화되지 않고 연구자에 의해 직접 얻어진 1차 자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태원 현장에서의 조사는 2004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때로는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특히 2009년 6월에서 7월, 그리고 2010년 5월부터 9월 사이의 조사 과정에서 얻어진 것들이다.

심층인터뷰에 응해준 인터뷰 대상자들을 대략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지역권과 성별로만 대강을 정리해 보면 한국 여성이 8명, 남성이 19명, 아프리카계 여성 1명, 남성 5명, 남아시아계 여성 1명, 남성 4명, 동남아시아계 남성 3명, 중앙아시아계 여성 1명, 오세아니아 남성이 2명, 남미 여성 1명, 서유럽 여성 1명, 남성 1명 등이다.⁴⁾

정보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이름에 대해 한국인들의 경우 성만 표기하되 내용을 바꾸었으며, 외국인들의 경우 성을 제외하고 이름(First name)만 기입하되 일부의 이름을 바꾸었다. 또한 영업장소와 관련된 경우 구체적인 업소명을 피하고 업종만 기입했음을 밝힌다.

영역이지만, 참여관찰이나 통계조사, 인터뷰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고, 그곳의 거주민들 사이에서 이태원 내 다른 공간의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별로 없는 점 등으로 인해 본 논문의 대상범위에서는 일단 제외했다. 외인 고급주택에 관해서는 외국인 대상 임대주택사업을 중심으로 본 홍준길(2003)의 연구와 외인주택의 사회적 측면을 본 최종일(2003)의 연구 등을 참고하기 바람.

- 4) 정보제공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본 논문에서 직접 인용된 것도 있고 간접적인 분석대상 자료로서 일반서술 안에 정리된 것도 있다. 인정되어야 할 한계점은 여기서 인터뷰된 정보제공자들의 의견이 이태원 내 각 커뮤니티의 입장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것들이 적어도 각 상황들의 의미 있는 각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해 자료로 활용했다.

〈한국인 인터뷰 대상자〉

번호	이름	국적	연령	성별	직업 또는 근무지
1	정○○	한국	46	남	외국인(백인)전용 Pub 사장
2	구○○	한국	63	남	한식당 주인
3	최○○	한국	62	남	보광동 통장
4	박○○	한국	56	남	타이식당 사장
5	나○○	한국	52	남	유홍업소 관리자
6	최○○	한국	47	남	큰옷가게 사장
7	전○○	한국	65	남	엔택가구점 주인
8	김○○	한국	58	남	무슬림식품점 공동대표
9	이○○	한국	57	남	모자가게 사장
10	박○○	한국	88	남	남부노인정
11	김○○	한국	58	남	양복점 사장
12	한○○	한국	72	남	치과의사
13	전○○	한국	58	남	가방가게 주인
14	김○○	한국	52	남	이발소 주인
15	서○○	한국	49	남	트랜스젠더 바 주인
16	이○○	한국	60	남	양복점 사장
17	최○○	한국	68	남	외국서적 서점주인
18	이○○	한국	48	남	부동산 공인중개사
19	강○○	한국	71	여	노인정
20	정○○	한국	41	여	무슬림 베이커리 주인
21	안○○	한국	64	여	한식당 주인
22	민○○	한국	48	여	프랑스 식당 사장
23	정○○	한국	66	여	부동산 공인중개사
24	장○○	한국	73	여	반찬가게 주인
25	이○○	한국	57	여	잡화점 사장
26	최○○	한국	35	여	무슬림음식점 매니저

〈외국인 인터뷰 대상자〉

번호	이름	국적	연령	성별	직업 또는 근무지
27	Aicha	세네갈	28	여	학생
28	Mboko	카메룬	43	남	비즈니스맨
29	Anthony	카메룬	36	남	이발소 주인
30	Ibrahim	나이지리아	32	남	(아프리카) 식당 손님
31	Yassir	모로코	27	남	학생
32	Mohammed	모로코	43	남	(북아프리카) 식당 주인
33	Khan	파키스탄	42	남	비즈니스맨
34	Abdullah	파키스탄	37	남	이슬람중앙성원 신도
35	Mohammed	파키스탄	37	남	모자가게 사장
36	Mahamud	방글라데시	46	남	할랄음식점 사장
37	Yasmina	방글라데시	38	여	이슬람서점 점원
38	Abdul	타일랜드	64	남	이슬람중앙성원 이맘
39	Susan	타일랜드	41	남	타이식당 매니저
40	Montry	타일랜드	30	남	타이식당 부주방장
41	Aila	우즈베키스탄	25	여	케밥가게 점원
42	David	호주	53	남	Pub 사장
43	Mathew	호주	42	남	Pub 손님
44	Marina	파라과이	42	여	남미음식 식당 주인
45	Samantha	영국	38	여	길거리 공연가수
46	Alfred	독일	48	남	독일 식료품점 사장

II. 이태원의 공간형성 과정과 문화영역

여기서는 이태원의 공간이 형성되어온 과정을 지역의 인구구성 과정과 상호작용의 조건 준비라는 차원에만 집중해서 간략히 정리한다. 이태원의 일반적인 역사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재 이태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구집단의 유입과정과 상호작용 방식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의 형성과정을 정리해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다음 장에서 이태원의 '문화영역' 형성과 '다문

화 지대 내 상호작용'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태원 일대의 공간 형성사는 특히 근현대에 들어 한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유입과 공간점유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다른 종족과 국적, 문화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인식하는 방식은 그렇게 편안하거나 평등한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경제적인 이익추구와 거래관계를 형성하며 이곳에 자리잡아온 그들의 상호인식은 오히려 상당한 정도의 불평등한 권력과 갈등관계의 감정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도 했다. 그것은 다시 오늘날 이태원의 '다문화성'에 대한 인식의 성격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 외래인(外來人)들의 구역: 한국인과 외국인

이태원 지역의 오늘날을 만드는 데 있어 개항 이후 계속되어온 외국군대의 주둔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⁵⁾ 조선말 임오군란을 진압하기 위한 청나라 군대의 사령부는 둔지산과 남대문 밖 남단(현재 용산고 자리)에 위치했다. 그리고 을사조호조약 이후 일본은 장기적인 주둔을 목적으로 1906년부터 용산에 군사기지를 조성하게 된다(신주백, 2007: 193). 그리고 주변에는 일본군을 상대로 하는 소규모의 상업과 관사들이 들어섰다.

해방을 맞고 용산에 미군이 진주하면서 이태원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의 틀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간다. 미군은 용산의 일본군 병영과 시설을 그대로 접수해서 지금의 남측캠프(South camp)와 북측 캠프(North camp)를 만들었다. 이어 6.25전쟁이 지난 후 이태원에는 본격적으로 기지촌이 들어선다. 일본군 부대 주둔시 유흥과 율락업소들이 신용산 일대에 들어선 이후(용산구청, 2001: 118; 이혜은, 1986: 126) 조선의 일본인 거류민단이 주축이 되어 영업하던 이 율락업소들은 매매춘과 요식업소들로 발전했다. 이후 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하자 이전에 기지 주변에서 성매매를 하던 한국 여성들이 다시 모여들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율락과 유흥업소도 성행했다. 한국 여성들의 미군대상 사창(私娼)은 이후 이태원 기지촌의 가장 중요한 업소들로(홍성철, 2007: 170) 자리 잡았다.

5) 개항기 이전의 이태원의 지명유래와 역사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80), 서울역사박물관(2910), 정학진(2000) 등에서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제보자: 그때만 해도[1960년대 초] 이 부근에 변변하게 생긴 가게라고는 전부 그거, 아가씨집, 훔.. 그거 뿐이지. 그게 시초여.

조사자: 그래도 일반 주민들이 시장보고 하는 가게도 있지 않았나요?

제보자: 구멍가게나 쌀가게, 채소가게, 그런거[그런 것도 있었지]. 근데 그것도 전부 미군상대 아가씨들 집 위주로다가, 실은 거기 미군이 이 동네 전부 맥여 살린 거라고 봐야지. 미장원도 색시들이 버글버글, 밥집도 아가씨들 밥 배달, 뭐 구두수선집도 거기 위주, 전부 그렇게 돌아갔어. 거기서 돈 흘러나오니깐, 이제 동네 판 게 돌아가고...(박○○: 남, 88세, 남부노인정).

미군과 그들을 상대로 하는 윤락 및 유흥업소들 외에 또 하나 중요한 이태원의 변화는 새로운 한국인 주민들이 해방이후 급격하게 불어났다는 점이다. 즉 전국 각지에서 온 이촌향도(移村向都) 인구와 전쟁 후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일대에 이른바 '해방촌'을 건설한 것이다. 해방이후부터 이태원 군주둔지 북쪽언덕에는 새로 정주하는 인구가 급성장해, 서울에 형성된 최초의 무허가 불량주택촌(이기석, 2001: 56-57)을 이루었다. 그리고 전쟁기간 전후로 월남한 많은 피난민들도 이곳에 모여들었다.

제보자: 서울에는 연평도에서 왔지. 이미자가 가수 데뷔하기 3년 전에

조사자: 서울 오신다음에 처음 자리 잡은 데는 어디에 오신 거예요?

제보자: 그러니까 여기 80번 버스타고 용산역에 내려서 80번 버스를 타고 여기 와서 옛날에는 현대타운 아파트, 그 전에 상용주 택이 있었어요. 130호에 아는 사람이 있어갔고 걸다리 꺼서 자고 있었지. 그 날 와서 이태원에 나간 거예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그 날 저녁에 이태원에 나갔어. 가게 앞에 지금 파출소 뒤 먹자골목. 맞은 편 길이 있고 골목길이 있고.

조사자: 그때[50년대 중반] 이 선생님 고향[황해도]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 많았나요?

제보자: 우리 고향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봐야지. 나는 혼자 왔고. 근데 저 위쪽[남산 남측] 고개 그 위에 해방촌이라고, 판잣집이 엄청나게 생겼는데, 이북서 피난온 사람 엄청 많이 몰려와서다가 거기다가, 판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구 여기는 미군부대 걸다리라 뭐 해먹고 살꺼리라도 있었고.

(최○○: 남, 62세, 보광동 통장).

해방촌의 형성 무렵, 이렇게 외부에서 한꺼번에 진입한 새로운 주민들을 수용할 주택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 결과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걸쳐 용산 이태원 일대, 즉 남산 남측기슭의 기존 공동묘지 지대와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복숭아 밭 언덕배기들이었던 이태원 일대 야산언덕에 대량으로 무허가 판자촌이 들어서기 시작했다(김철호, 2010: 83).

이 판자집들의 일부, 특히 도로변에 접한 곳들은 미군 상대의 유흥과 율락업소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리고 경사지에 위치하는 주거용 가건물들은 기지촌 상업지대로서 재래시장과 근린생활 상점이 되기도 했다. 주거지들로 남은 곳은 미군부대 근처의 상가에서 일하는 상인들의 주택이 되었고, 이후 보다 튼튼한 벽돌 및 콘크리트 건물로 개축되어 미군부대 종사인구의 임대용 주거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일부 구역에는 보다 넓은 필지들이 정리되어 외국공관과 기타 외국인들을 위한 고급주택지들이 마련되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미군과 한국의 젊은 여성들, 그리고 피난민들이 각기 다른 배경 속에서 비교적 밀집된 이태원 공간으로 모여들어 교차되고 뒤섞이는 일상적 공간영역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제보자: 일본 사람들 간 다음에? 그때 약은 사람들은 죄 하나씩 일본사람 집 차지하고 들어섰는데.. 우리는 명칭해서 그냥 번히 [차지도 못하고] 그랬지.

조사자: 복숭아밭도 그대로 남았나요?

제보자: 여기 전부다, 언덕배기로는 복숭아하고 배나무 과수원 천지였는데, 그담에 많이 없어졌어. 그리고 저 아래 시장 쪽으로(현재의 이태원 시장 쪽) 이층 슬라브 집들이 죽 길 따라 생겼는데, 반찬가게도 몇 개 있구, 가정집인데 속에는 전부 색시집으로 들어왔어요. 아이구 우린 자세한 건 몰라. 하여튼.

조사자: 그쪽은 별로 안 다니셨나요?

제보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토박이는 아니야. 다 외지인들, 밖에서 들어와서 장사한 사람들이지. 돈들 많이 벌었는데, 금세 떠나는 사람도 많았어. 이 동네 토박이는 별 상관 안 해. 거기는 온통 미국 군인들, 아가씨들, 장사하는 사람들 복잡복잡... 정신없었는데, 우리는 그 아래로는 안 다녔어. 여기서 따로 저 아래(경리단 쪽)으로만 다니고. (강○○: 여, 72세, 노인정).

이들의 공통점을 굳이 찾자면 이 동네의 ‘토박이’라고 하기 어려운, 멀리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지방에서부터 모여들어 새로 정착한 ‘이주민’들이라는 점이다. 물론 그 중 일부 피난민 출신의 정착자들은 이태원에 비교적 오래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자신들을 일종의 ‘토박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 일대는 유동성이 매우 높은 도시의 일반적 특징을 넘어선 ‘이주자’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곳이 되었다.

2. 관광객, 외국 상인과 노동자 - 또 다른 ‘이타인’들의 진입

이태원에서 1970년대에 일어난 변화 중 중요한 것으로는 1976년에 준공된 이슬람 중앙 성원의 건립을 꼽을 수 있다. 세계 에너지 위기 속에서 중동 산유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던 당시 한국정부는 무슬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국가와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동국가들의 기부를 받아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게 된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6: 1948-1949).

당시까지도 무허가 판잣집이 많았던 이태원 일대에는 사유지가 많아서 정부가 비교적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서울시내의 공간이기도 했다. 동시에 외국군대 주둔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치외법권 지대에 가까운 ‘예외적 공간’이었다는 점도 중요했다. 이런 점들은 외국인들이, 어떤 국적이라도, 서울에 진입한 경우 가장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곳으로 이태원지역이 선택되고 또 그렇게 인식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제보자: 그때 [1980년대 초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기 한국서 공부하러 온다고 유학생을 50명을 한꺼번에 풀어놨어요. 서울대 학교에다가 어학연수 시키고, 또 비즈니스스쿨 이런 거 연결시키고. 그런데 내가 그 정보를 입수했어요. 여기 대사관 사람들 통해서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그쪽 친구 두 명하고 연락해가지고 하루는 버스 하나 대절 해다가 주말에 그냥 일투[이태원으로] 데리구 왔지. 이것저것 말할 것 없이. 딱 데리구 와서 풀어놨어요.

조사자: 이슬람 중앙 성원예요?

제보자: 아니 거기는 갈 필요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이 동네로 데리고 온 거지.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구, 아니 세상에 한국에 이런 별천지가 다 있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맨 날 저녁마다 택시들 잡아 타구 무조건 “이태원가자!” 해가지고 매일 저녁 여기 와서 이주 살았어, 그 친구들이, 외국 사람들이 자기 물 만난 거지.

조사자: 여기 와서 무얼 했나요? 그 사우디 사람들이.

제보자: 내가 동네 한 바퀴 전부 안내 해주고, 옷도(우리 양복점에서) 주문받아서 한 벌씩 단체로 맞추고, 그리고 그 재미본건, 이 친구들이 팔라를 지폐몽치로 내게 갖고 오면 내가 한국 돈으로 바꿔주고. 주말마다 수입이 엄청났어요. 그게.

(김○○: 남, 58세, 양복점 사장).

1976년에 세워진 한남동의 이슬람 중앙 성원은 중동 산유국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건립되었지만, 이곳에 외국출신의 무슬림들이 대거 진입하게 된 것은 1980년대 말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 출신 무슬림 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이다(홍승표, 2008: 13). 때마침 용산기지 주둔 미군의 숫자가 감소하면서 이태원의 외국인들 중 비서구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른바 민족 혹은 인종의 다양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에 따라 이태원의 외국인 문화는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향락, 유흥문화 일변도에서 서서히 넓어져 인도 파키스탄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본관광객 등의 종교 및 음식, 의복문화가 이태원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든다.

이태원의 상업적 성격과 이태원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의 성격을 다변화시킨 또 하나의 계기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에 열린 서울올림픽 전후로 국내에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태원을 찾게 되면서부터다.⁶⁾

제보자: 70년도, 그 때[까지]는 일반 관광객이 없어요. 일반 관광객이라고 해 봐야 일본사람, 그나마 그것도 섹스관광이지. 그 다음에 순수한 주한 군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군인 가족이 자기 아들 딸 자녀들 있으니까 한국에 면회를 와요. 여기가 8군이 있으니까 여기로 다 와야지 예하부대 어디가 있는지 알죠. 여기서 가이드를 하니깐, 8군에서. 그래 가지고 여기가 미군 가정들, 부모들이 와 가지고 관광이 이루어 진거요. 그 때부터 초창기라고 보면 되요. 그 다음에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그때

6) 석철원(1986)과 정확진(2000), 정은슬기(2001)의 논문들은 이러한 관광지 개발전략을 위한 도시설계와 거리디자인을 위한 관심을 반영한다.

부터는 진짜 몰밀듯이 들어왔죠. 보통 형제나 자식들 특별한 일 있으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쇼핑이 그 때 부터 전반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남, 60세, 양복점 사장).

이렇게 미군 기지촌으로 출발했다가 다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 거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곳의 상업적 기회를 노리고 들어오는 한국인 상인집단의 수도 증가했다. 그리고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 이슬람 문화권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입도 증가했고, 이후 다양한 외국인구의 거주와 출입, 이를 둘러싼 상업기회와 외국문화 소비기회를 찾는 한국인들이 이태원의 문화적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고 할 수 있다.

3. 현재: 영역의 구성과 다양성 확대

2011년 현재 이태원 공간들은 상대적으로 한정된 영역 안에서 계층별, 성별, 국적과 종족별, 종교별, 그리고 직업과 문화취향별로 다양한 구성을 보여준다. 먼저 용도별로 보면 상업지와 주거지가 적지 않은 영역에서 혼재한다.⁷⁾ 이것은 이태원에 주거지들이 형성되던 초기부터 있던 현상이다. 즉 주거지의 일부에서 미군 상대의 술 판매업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태원 상업의 출발인 것과 같다.

이태원의 공간을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주거지에서보다 상가에서 나타나는데, 이 상가들을 중심으로 이태원 일대를 대략 다음의 다섯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이태원 일대(이태원로 중심으로 형성된 상가와 이를 포함하는 이태원 1동, 2동 및 한남동과 보광동의 일부)의 공간구성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곳이면서 동시에 현재 가장 낙후한 건물들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주택가와 주택가 인근의 작은 근린상가 및 업소들이다. 둘째는 이태원의 상업적 역사에서 역시 가장 오래된 곳이고 앞서의 판잣집들과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 미군상대 소규모 클럽 하우스들이다. 클럽 중에서도 이태원로의 상가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무허가 주택가와 좁은 골목들에 들어서 있는 소

7) 외국공관들을 비롯한 고급주택지들은 예외다. 그곳은 명백히 주거지들의 동질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규모의 미군전용 세칭 ‘홀하우스’들이다. 이곳은 오랫동안 술과 함께 한국인 여성들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으로도 유명했던 곳이다. 2010년 지금 현재까지도 이들 유흥공간은 이태원의 술문화와 유흥문화의 중심 업소들로 존재하고 있다.

셋째는 현재 이태원로 남북 쪽으로 다수 분포해있는 의류와 가방, 신발 상가들이다. 이곳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들어 한국의 섬유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외국인 상대의 양복점과 양장점, 기타 의류와 가방, 신발가게가 발달하면서 들어선 상가다. 넷째는 이태원이 관광쇼핑가로 발전할 무렵에 시작되어 1990년대 확장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인 소비자들까지 대량으로 그 소비자 군에 포함시키게 된 외국음식 전문점들이다. 초기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외국인들의 본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으로 시작되었다가 음식국적에 해당되는 외국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식 맛을 추세의 발전에 힘입어 서양인, 아시아인, 일본인, 한국인 등 다양한 국적의 손님 층을 받아들이는 식당들로 발전했다.

다섯째는 해밀턴 호텔 앞 사거리에서 보광동으로 내려가는 길에 조성된 가구거리다. 이곳은 본래 소규모 주택들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래시장의 간이음식점, 술집, 미장원들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 해외로 이주하는 외국 공관 및 미군장교와 외국인 비즈니스맨들이 내놓은 외제 가구를 파는 중고가구점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태원의 공간들은 역사적 단계에 따라서 하나하나 구성변수가 늘거나 변하면서 초창기에 비해 다층적이고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각 인구집단 혹은 커뮤니티의 문화영역들을 이루면서 공존 또는 회피의 상호작용 전략들을 구사하는 무대로 활용된다. 이제 상대적으로 좁은 이태원 지역 안에 수십 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외국인들의 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곳의 문화영역에 대한 각 주체들의 인식과 상호작용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자.

Ⅲ. 문화영역과 다문화 지대 내의 상호작용

1. 문화영역: 인종과 성, 종교의 경계선과 실천

이태원의 공간배치 특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국적과 종족, 그리고 종교에 따른 영역의 형성이다. 외국인 전용공간과 혼합 공간, 그리고 한국인들이 주도적인 소비자 군을 이루는 공간들은 이태원에서 점차 복잡한 형태로 얽히면서 발전했다. 이후 시대가 흐르면서 이태원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의 국적과 종족, 종교가 다양해졌다. 상대적으로 미군의 숫자는 줄어들었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주로 주간의 방문자와 야간업소 손님 중 일부를 차지했다.

그렇지만 이태원의 형성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은 미군 부대의 존재였고, 다양한 인종과 국적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미군과 관련된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우선 미군과 한국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업적인 거래관계가 기본을 이루었는데, 그중에서도 유티업소의 매매춘과 유흥지대에서의 서비스 판매와 소비관계가 기본축의 하나였다. 기본적으로 미군들의 유흥지대에서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한국인 여성들과 한국인 남성상인들의 접근과 상호작용이 가능했고, 이들 이외의 한국인 남성들이 미군들과 만나 상호작용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통제되거나 실제적으로 기피되었다. '외국인 전용 업소'라는 팻말들과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한국인(남성) 출입제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했다.

하지만 미군과 관련된 다인종간 상호작용은 미군들 사이에서도 무시 못할 구분선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당시의 미국문화는 흑인과 백인간의 차별이 심했고 같은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태원 상가를 사용하는 미군들 사이의 소비 공간 활용에 있어서 공식적 규칙은 없었다. 하지만 실제 행동패턴의 차원에서 그들은 제법 강하게 영역을 구분(Hall, 1977: 166-167)했다. 간단히 말하면 흑인 병사들이 주로 가는 곳에 백인병사가 가지 않았고, 백인병사들이 가는 곳에 흑인 병사들도 별로 출입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종에 의한 구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군대에서의 계급의 차이에 의한 구분이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지리적인 경계선이 실천적인 차원에서 지속되었다.

제보자: 여기, 지금 이태원 소방서 아래 길에서부터 저 위로(일명 후커 힐이라 불리는 골목 등)는 백인 오피서(Officer)들은 얼씬도 안 했어요. 지금 여기 이화시장 골목까지가 다 그래. 전부 흑인들 뿐이야. 그리고 그 아래로, 해밀턴(호텔) 건너서부터 아래 큰길 쪽으로는 전부 백인만. 원래 미군들도 70년대까지 자기네끼리 흑백 인종차별이 심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상관을 안해. 아예 노는 물이 달라서 근처에도 안 갔어요. 지금도 사실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흑인 백인 잘 안 섞여요. 공식적인 무슨 규칙은 없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서로 피하는 거지.

(전○○: 남, 65, 엔틱가구점 주인).

종교라는 변수는 한국의 도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영토 혹은 영역의 구분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태원의 경우 최근에 일어난 변화 중 하나는 종교를 준거로 하는 영역의 구분, 즉 일명 ‘이슬람 거리’의 형성이다. 이태원 소방서 옆에서 보광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길과 다시 보광초등학교에서 이슬람 중앙 성원에 이르는 길목에 형성된 이슬람 음식점, 식료품점, 의류점, 서점, 정보통신기기점, 여행사 등의 업소가 그것이다.

이곳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출신 무슬림들이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 자격으로 대거 입국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에 무슬림들에게 식료품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 한두 군데로 시작되었다(송도영, 2006: 110). 그리고 할랄 식품점들의 증가와 함께 2004년 이후 급격하게 발전했다. 남아시아 출신 무슬림들 중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입국했거나 이전부터 한국에 들어와 한국어 성들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규율이 적용된 ‘할랄식품’에 대한 공급을 하면서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금기가 강한 남아시아와 중동 출신 무슬림들을 위한 식품점과 식당, 서점, 여행사 사무실, 그리고 생활용품점이 발전했다. 이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많이 다니는 식당 거리에서 불과 십여 미터 떨어진 독일식 수제 햄 가게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돼지고기는 이슬람에서 최고의 음식금기 대상 중 하나다.

제보자: 우리 가게(독일식 수제햄 가게)에는 독일사람, 영국사람,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은 손님이죠. 그중에서도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친구 만나러 자주 들르고, 식당은 그렇고 아래층 델리 가게에는 [구분 없이] 다 와요. 요새 한국 손님도 많이 늘었는데, 일본 관광객도 좀 오고. 그래도 고향 맛을 찾는 오스트리아, 독일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맨, 대사관 직원, 관광객 대중 없이 옵니다.

무슬림들? 그 친구들은 여기 눈길도 안주지! 하하. 소시지하고 햄 만드는 가게인데 냄새만 풍겨도 도망갈 걸. 전에 몇 명이 맥주 한 잔 하려고 들어오다가 우리가 햄 만드는 것 보고는 그 길로 나간 적이 한 번 있고. 대체로 우리 집 간판만 봐도 안와요. 근데 그 사람들 다니는 골목이 바로 우리 집 길 건너 짝아요.

(Alfred: 남, 48, 독일 식료품점 사장).

그렇지만 막상 유럽인들과 기타 다른 종교를 가진 문화권 사람들은 이슬람 전문 음식점을 즐겨 찾는다. 그들에게는 다른 종교적 음식금기가 없기 때문에 이슬람 음식들이 종교적 배타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일종의 다른 '맛'의 하나로서 자신들의 메뉴를 풍성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인식되고 실천되는 셈이다.

제보자: 우리 가게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다 있어요. 그게 할랄 음식점의 최대 장점이죠. 베지테리언[채식주의자]들 위한 음식도 있고, 고기도 다 할랄고기만 쓰니까 무슬림들이 안심해서 먹고. 영국인, 미국인 손님도 꽤 많이 와요.

조사자: 한국인이나 아시아 사람들도 손님 중에 많은가요?

제보자: 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처음 개업할 때[9년 전]에는 외국인 대 한국인이 70대 30 정도 됐었는데, 요즘은 50 대 50은 되는 거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또 매콤한 카레 빨리 적응하는 거 같아요. 인도여행 한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무슬림 손님 대접하려고 한국 사람들이 무슬림들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고, 가족 외식 오는 사람도 많이졌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가 물어보면 인터넷 보고 왔대요. 요새 인터넷에서 우리 같은 가게 정보가 그만큼 많이 (떠돌아) 다녀요.

(Mahamud: 남, 46세, 할랄음식점 사장).

이렇게 종족, 국적과 인종, 종교, 성적 취향, 계층별로 구분이 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에 상관없이 다국적 출입인구로 복적거리는 공간들도

있다. 한국인들이 차려놓은 약국은 무국적지대다. 할랄 음식점이나 터키식 케밥집에는 백인 미국군인도 일본인 관광객도, 그리고 음식금기가 강한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도 거리낌 없이 드나든다.

하지만 '퓨전' 공간, '혼성적' 공간이 따로 차려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공간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계층별, 성별, 인종별, 종교별, 취향별 영역은 각 상황에 따라 나름의 배타적 영역을 만들며 유지한다. 갈라진 채 공존하고 일부는 혼합하면서 다시 갈라진다. 그 속을 이태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은 제대로 섞이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그룹별로 떠다니며 서로 교차하고 병렬적으로 공존한다. 같은 공간을 이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커뮤니티의 일원인 것도, 문화적 취향을 딱히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제보자: 글썩요. 서로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조사자: 서양 사람들끼리는 자기네 펍(Pub)에서 서로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같은 무슬림들끼리 그렇게 아는 체하고 인사하지 않는지요?

제보자: 같이 예배보고 나온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 신도보다는 비즈니스맨이나 관광객, 대사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터키나 파키스탄 손님들이 영국 손님들한테 말 안 걸어요. 영국 손님들도 우리 집 단골 몇 팀 있는데, 딴 손님하고 말하는 것 없어요. 일본이나 한국 손님들도 자기네들끼리만 먹고 가고. 그런데 대부분 식당이 다 그런 것 아닌가요? 특별히 말 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무슬림들은 여기가 할랄 식당이니까 오고, 한국 사람들은 인도음식 먹으러 오는 거고.

(최○○: 여, 35, 할랄음식점 매니저).

제보자: 시간대가 다르고 노는 장소가 다르지요. 이게 바깥 붙어있는 가게라도 문 여는 시간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가게[트랜스젠더 클럽]은 주로 주말에 밤 11시 넘어 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옆집에 있지만 저 가게들[할랄 식료품점과 무슬림 베이커리]은 저녁 9시면 다 문 닫으니까 [손님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칠 일이 없지. 우리 가게 언니들은 어차피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에는 들어가서 자고. 옆집 가게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고 저녁까지 일하다 문 닫고. 그러면 우리가 또 문

열고 움직이고. 같은 건물에 있어도 완전히 딴 세상이니까.
어찌다 저녁때 지나가다 만나도 서로 상관 안 해요. 서로 피해
만 안주면 되니까. 자기네랑 입맛 다르다고 나대면 우리도 가만
안 있지. 그런데 그럴 일 아예 없어요.

(나○○: 남, 52, 유흥업소 관리자).

이웃에 있거나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문화영역의 구성원들 사이에 만남이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웃에 공존하되 서로 상대방 문화의 기준을 부정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이들 다양한 성격의 인구가 만들어내는 영역이 일상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외적인 평화공존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즉 어떤 하나의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통일된 문화적 규율을 받아들이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자신 혹은 상대방의 기준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다분히 수동적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용인하고 개입하지 않는 방식이 이태원의 다문화적 영토 구성원 간에 발전시켜온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2. 한국인들이 타민족 구성원에 대해 갖는 인식과 상호작용 태도

외국인들과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갖게 된 이태원 공간에 대한 한국인 주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인식이 공존한다. 이태원의 상인들과 적지 않은 주민들에게 미군은 생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천을 제공해 준 ‘고마운 손님들’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지촌이 지배적이던 시절 이태원 상인들은 바로 이 미군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상대로 돈을 벌었고 미군 고객을 더 많이 잡기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다. 그렇지만 초창기부터 외국인들 중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점했던 미군에 대해서는 그들 중 일부가 한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욕망을 채우며 향락과 기타 유흥산업의 주요 고객이 된 것에 대해 윤리적 또는 도덕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미군이 주인노릇을 했던 이태원시장 일대는 오랫동안 물자의 부족과 대중 문화 프로그램의 빈약함으로 인해 갈증을 느껴온 한국인들에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문화적 요소들의 국내유입 창구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것은 풍요롭고 발달된 소위 ‘선진국’의 문물을 향한 탈출구이자 수입통로로서 선망의 공간역할을 했다. 동시에 한국도시 한 복판이면서도 이 구역에서만큼은 미군이 주

인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태원의 한국인들은 자기 도시 공간의 주도권을 상실한 자괴심과 자기비하의 감정을 수시로 경험하게 된다.

제보자: 나는 우리 아버지 따라서 어릴 때 이사 들어왔지만, 우리집 애들은 1980년대부터 방배동에서 컸어요. 전부. 왜 이사 갔냐구요? 여기서 애들 키울 수는 없잖아! 여기가 외국 손님 많고 돈은 잘 벌리지만, 솔직히 애들 키울 데는 못돼.

조사자: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제보자: 우리가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살았지만, 사실 이 동네가 한국 땅이 아닌 셈이 잦아요. 여기 주인은 미군이고 외국 사람인지.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면서 사니까, 길거리에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여기서 개업하고 활동 한다는 게 한쪽으로는 오장육부 내놓고 사는 거지. 우리 손자 손녀들은 여기 놀러 못 오게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 남, 72세, 치과의사).

제보자: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서 장사는 하지만 절대로 이 동네 이사를 생각은 없었어요.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매일 출퇴근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애들은 어렸을 때는 가게에 일선도 못하게 했어요. 물론 다니는 게 좀 피곤하지요. 맨 날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시장보고 준비하고, 저녁때는 7시 반까지만 장사해요. 그 이상 이 동네 꼴 볼 일 없어요.

조사자: 그래도 저녁식사 손님도 꽤 있을 텐데 저녁 장사는 빨리 끝내시네요.

제보자: ... [잠시 침묵]... 그래도 그게 나아요. 낮에 손님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집은 저녁식사 손님 안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아예. 더 자세한 건, 저기, 묻지 마세요.

(안○○: 여, 64세, 한식당 주인).

관광객으로 몰려와 장사를 시켜주는 일본인 관광객들과 기타 중국 및 서구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미군들이 손님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와 관계인식에 있어서 약간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 여전히 이태원 시장의 주도적인 문화세력은 미군의 문화였지만, 새로운 외국인 손님들이 진입하면서 그들의 비위에 맞고 그들의 수요에 적합한 상품과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야 했다(야은숙, 1997: 28). 그것은 군사주둔지의 주인공인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이 낳는 감정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졌다.

제보자: 80년대 말에 유럽관광객, 일본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장사하는 방식에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지. 바[Bar] 같은 업소들은 몰라도 우리 옷가게, 가방가게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 뭐 팔릴 것 없는 거지. 이 동네 주인이 우리고 그 사람들이 손님으로 오는 거니까. 여차피 여기 오래 머무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돈 쓰고 돌아가고, 우리는 여기서 물건 차려놓고 돈 벌고. 그때 경기 좋았어요. 한 15년 동안. 지금은 다 오그라들고.

(전○○: 남, 58세, 가방가게 주인).

서구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들은 계속 이 도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었고 주도적인 힘을 갖는 정착민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태원의 상인들과 한국인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먹여 살리는 중요한 고객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비교적 단기간 동안만 방문하고 돌아가는 일시적인 손님인 것도 사실이었다. 여기서 새로운 관광객들과 이태원의 한국인 상인 및 주민들은 이전보다 수평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는다.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들과 러시아 댄서들,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에 대해서는 이태원의 한국인들이 또 다른 관계를 맺게 된다. 1990년대에 한국에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무슬림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거부하는 이른바 3D 업종인 중소기업 제조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고용되어 일하기 위해 들어온 노동인구다(설동훈, 1999: 24). 이태원 거리에서 과거 절대적인 힘과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국인들이나 관광객으로서 꽤 비싼 매출액을 올려주면서 물건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나가는 관광객들과 달리 무슬림 노동자들은, 일부 특별한 식료품점을 제외하고는, 이태원의 한국인 상인들에게서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았다.

이들의 소득수준이나 한국사회 안에서 담당하는 직업의 위계가 한국인들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실, 이들의 피부가 짙은 색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들의 출신국 소득수준이 한국의 그것에 비해 낮다는 사실 등은 아시아계 무슬림 노동자들의 위치를 이태원의 한국인 상인들의 인식 속에서 그들의 위치보다 낮은 외국인으로 자리 매기게 했다(함한희, 1997: 101). 이태원의 한국인들은 마침내 자신들보다 '낮은' 위치에 매겨지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국인들을 다수 만나게 된 것이다.⁸⁾

초기에는 다수가 수도권외의 공장지대에 거주하면서 이태원 이슬람사원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방문했었던 동남아시아 무슬림 노동자와 상인들, 그리고 검은 아프리카 출신의 이주민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태원에 방을 임대하기 시작했다. 즉 일정기간 이상 정착하면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활동의 터전을 넓힌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이태원 거리의 주민으로 들어온 이들 아프리카인들과 외국인 무슬림들에 대해 이태원의 한국인들은 이전의 미국인들에 대한 것과 다른 태도를 보인다. 우선 그들의 경제적 소비능력이 낮다는 사실, 따라서 큰돈이 되는 고객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게 인식된다(이옥정, 1994: 30). 그 결과 한국인 상인들과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아시아계 무슬림들이나 아프리카인들과 간단한 형태의 상업적 거래만을 할 뿐, 그 이상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조사자: 그렇게 사장님께 의뢰해서 세를 얻는 사람들이 주인들하고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나요?

제보자: 집주인들이 바라는 거야 뭐 그냥 짐세 잘 내고 조용히 지내는 거지. 그런데 개네들(남 아시아계 외국인 노동자와 상인들)은 우리도 별로 상관 안 해요. 애네들은 가끔 어처구니없을 때가 많아요. 전에 미군들은 2년 치 짐세 현찰로 한꺼번에 다 잘 냈다는데, 물론, 애네들 들어오는 집이 허름한 거긴 하지만, 한번 정한 짐세도 중간에 깎아달라고 떼를 쓰는 녀석도 있어요. 확실히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질적으로 차이 있더라고요. 어떤 놈은 짐세도 떼먹고 도망간 친구도 있어요. 내가 그것들 짐 소개를 해주니깐 나도 중간에서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소개시켜 주지만, 나도 그걸로 끝이야. 집주인들도 상대하기 싫어하는 편이고.

(정○○: 여, 66세, 부동산 공인중개사).

소위 제3세계권 출신의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시아 무슬림 등에 대해서는 같은 구역 안에 살면서도 그들의 존재 자체를 겉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심리마저 표출된다. 그들의 경제적 구매력이 상업을 하는 한국인들에게 큰

8) 김은실(2004)은 이태원을 무대로 활동하거나 일대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국적에 따라 그들의 부동산 임대료가 영향을 받고 실제로 경제적인 계층이 나누어지며 한국인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위계를 짓게 됨을 지적한다. 여기서 경제적 소득에 따른 지위는 가장 구체적인 위계이미지의 근거가 된다.

‘매력요소’가 되지 않으며, 나아가 인종적 구분의식에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해 온 ‘차별의식’이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래 제보자는 나이지리아와 카메룬 등지에서 온 아프리카인들을 상대로 간단한 음식류를 팔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 막상 본 조사자와 어렵게 이루어진 인터뷰 초기에는 아프리카인들이 그곳에 많이 출입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나아가 그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가게와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제보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이 골목이 ‘아프리카 골목’이다 뭐다 하고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야. 이 골목에 가게가 수십 개가 있는데, 봐요, 아프리카 사람들 가는 가게가 몇 개나 있다. 서너 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한국사람 가게거나 아시아 가게인데 말야. 여기 아프리카 사람 거의 없대구.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아프리카 골목’이다 뭐다 떠들면 안 되지. 하도 그렇게 방송에서 말하는 통에 우리 집값만 다 떨어졌지 뭐야! 이런 건 좀 제대로 조사해서 바로잡아야지 우리가 피해를 안 볼 거 아니겠어요. (구○○: 남, 63세, 한식당 주인).

위의 제보자 구○○ 씨는 이후 같은 골목에서 계속 여러 차례 마주친 본 조사자와의 이후 인터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사자 스스로가 동네에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 중 아프리카인들이 상당수 된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 스스로도 느꼈을 것이며, 이후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3. 외국인들의 문화영역 인식과 상호작용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이태원 일대는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다른 도시구역에 비해 매우 특별한 곳이다. 한국안의 공간이면서도 외국인이 자신을 일방적인 소수자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곳,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곳.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문화와 친숙한 어떤 아이템이 어느 구석엔가 한 군데라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미군부대의 오랜 주둔으로 미국문화 요소, 특히 유흥과 소비에 관련된 문화요소는 이태원의 외국문화 영역들에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 이태원에는 프랑스 전문 음식점도 있고 파키스탄인들을 위한 옷가게와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위한 할랄 음식점, 터키식 베이커리와 흑인들을 전문으로 받는 이발소나 미장원이 존재하는 드문 곳이다. 그리고 일본말이 쉽게 통용되는 옷가게와 맛사지집, 한식 전문점들이 공존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음식급기가 강한 남아시아의 무슬림들은 이태원에서 할랄 전문 음식점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이 필요한 음식재료를 할랄 전문 식료품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고향의 맛을 찾는 독일인들도 독일식 수제 소시지와 햄들을 이태원에서 살 수 있으며, 진짜 독일식 맥주들을 맛볼 수 있는 자기들만의 영역을 한 구석에 갖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구성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이태원에 들어서면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제가 여기 들어와서 활동[길거리 공연] 하면서 느낀 거는 편안한 거예요. 서울시내 다른 데 어디 갔다가도 여기[이태원]만 들어오면 편안하고 느긋해요. 글썽요, 내 동네 같고, 나하고 비슷한 외국 사람이 많으니까. 나한테도 좀 더 안전한 동네 같은 느낌. 내가 손님이라기보다 나도 여기 주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 그런게 있지요. 그래서 신촌이나 홍대, 강남 사거리 그런 데서 공연하고 돌아다니다가도 결국은 저녁때 이태원으로 돌아와서 잠자는지도 몰라요.

물론 공연 호응도 이 동네가 괜찮은 편이구요. 외국 사람들이 그런 것에 훨씬 익숙하니까 박수도 잘 쳐주고, 웃기도 잘 하고, CD 도 잘 사주는 편이고. 관광객도 많잖아요. 내게 편안한 걸로 치면 한국에서는 단연 이태원이죠.

(Samantha: 여, 38세, 영국, 길거리 공연가수).

이태원 거리의 외국인들은 특별히 한국인들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점은 공간의 문화적 분위기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근에 미군부대가 있으며 수십 개에 달하는 외국 대사관들이 인근에 존재한다는 사실, 거리를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이들로 하여금 이태원 거리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도시 공간 지대라는 사실이 그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특히 다른 국적과 인종, 종교 구성원 사이의 편안한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 문화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각기 자기들의 문화영역 한 조각씩을 이태원 안에 확보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영역들이 공존하는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행동과 언어, 태도, 시선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외국인들 중 상당수는 한국문화에 대한 평가를 물을 때 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한국인들과의 상호작용 실천에 대해 물어보면 의외로 접촉이 많지 않은 경우들이 드러난다. 그리고 외국인끼리의 경우도 같은 문화권 출신이 아닌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이 특별히 발전하는 것도 아니다. 대개 의례적인 상업적 관계에 한정된 상호작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제가 한국을 좋아하니까 한국에 정착했고 여기서 살면서 장사도 하니깐 고맙죠. 굉장히 정도 많고, 음식도 훌륭하고 [...]. [한국] 손님들하고는 별로 얘기할 새가 없습니다. 그냥 음식주문하면 내주고 먹고 가고, 보통 그러죠. 솔직히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손님으로 오면 다른 나라에서 서로 반가우니까 걸어놓은 사진보고 고향 얘기도 하고 하죠. 가을에 맥주 축제 때는 독일 사람들, 오스트리아 사람들 다 모여서 밤새도록 놀입니다. 그때 한 번 오세요[...] 아프리카 친구들은 우리 가게 아예 온 적이 없습니다. 사실 남미친구들도 안 오죠.

(Alfred: 남, 48세, 독일 식료품점 사장).

원칙적으로 다른 국적이거나 다른 문화영역의 커뮤니티 구성원이 자신의 문화영역에 손님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부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를 정도의 커다란 구매력이나 기타 다른 매력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무관심이나, 심한 경우 보다 적극적인 배제의 기술들이 동원되면서 자기 문화영역의 '분위기' 또는 영토성을 확보하려는 전략들이 구사된다. 다만 경계 만들기 방식이 '차별'이나 '배제'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서로 보이지 않는 목계를 통해 덜 노골적인 실천방식들 혹은 전략을 취하는 것이 관건(Hall, 1977: 77)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를 활용하는 상인들의 상업적

의지가 함께 개입된다.

예를 들면 예전부터 백인들이 주로 드나들었고 현재도 백인 서양남자들이 많이 가는 한 펍(pub)의 경우 문 앞에는 여전히 “외국인전용 업소”라는 한글 팻말이 붙어있다. 공식적으로 볼 때 이런 팻말은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왜냐면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은 입장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외국인전용 업소”란 팻말은 “외국인의 입장만 허용 한다”는 말과는 다르므로 아슬아슬하게 불법을 피해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귀의 뉘앙스로 인해 이곳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이 위의 팻말을 읽고 일순간 업소 앞에서 스스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보자: 아, 그거[‘외국인 전용업소’란 팻말]는 그냥 참고하라고 붙여 놓는 거예요. 우리집 손님들이 솔직히 다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고, 주로 미국이나 유럽계 백인들인데, 우리가 사회 공헌 클럽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한국 손님들이 잔뜩 취해가지고 막무가내로 들어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와 봐야 여기서 할 일도 없는데. 여기서 사실 일종의 커뮤니티 클럽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백인들], 매너가 굉장히 분명해요. 술도 많이도 안 마셔요. 어떤 때는 맥주 한 잔 놓고 두 시간 세 시간 대화 나누다 가고. 같이 미식축구 경기보고 응원하고. 실수로 한국 손님들이나 동남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들어오면 쫓아낼 수 없으니까, 은근이 눈에 잘 안 보이는 자리, 저기 안쪽 자리로 안내합니다. 딴 손님들 눈에 잘 안 띄게. 그러면 좀 있다가 시들해가지고 나가죠. 그런게 우리 노하우죠.

(David: 남, 53세, 오스트레일리아, Pub 사장).

이 펍은 선술집으로서 단순히 개별적인 손님들의 개인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함께 어울려 이야기도 하고 당구 등 스포츠 게임을 벌이는 일종의 ‘커뮤니티’ 형태의 업소라는 특성이 좀 더 반영된 것이다. 백인들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이 펍에서는 따라서 흑인이나 아시아인 등 ‘다른 커뮤니티 집단’의 구성원들의 입장을 ‘부드러운 방식’으로 밀어내는 전략을 발전시키기 마련이다. 그래서 주로 백인 남성들끼리 선호하는 당구와 미식축구 경기 관람, 골프클럽과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팬클럽 운영 등을 통해 모임들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이런 스포츠나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우연히 들른’ 다른 계층, 다른

인종과 국적의 손님들을 ‘자연스럽게’ 소외시킴으로써 이후의 출입의지를 약화시킨다. 여기서 다른 계층과 인종의 손님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다는 것은 백인 중상층 이상의 남성들이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든다. 위의 사례는 사장이 백인 서양남자인 경우지만 한국인이 사장으로 있는 백인전용 Pub의 경우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

한편,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 지역출신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문화영역을 관리한다. 문화적 구분의 경계선을 만들어 활용하며, 거기서 또 다른 우월감 혹은 열등감과 관련된 위계적 인식을 한다. 예를 들면 이태원의 서남 아시아 인들은 백인 서양인에 대해서는 위축된 느낌을 갖는 편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프리카 인들에 대해 우월의식을 갖는다.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되 실제 벌어지는 상호작용의 맺어짐과 의례적으로 인사정도를 하고 지나가는 것 사이의 차이를 통한 구분이다.

경제적 계층의 위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동남아시아 무슬림 노동자들이나 아프리카인들은 상업 활동을 할 경우 손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문화영역을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⁹⁾ 하지만 이들도 경우에 따라 자신들끼리만 모여서 생활하고 거래하는 것을 통한 ‘안전한 느낌’ 또는 ‘자신들의 문화적 냄새’가 확보해주는 심리적 안전망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불법체류자들의 존재나 비공식적 상업관행으로 인한 당국 또는 외부 자에 대한 노출을 꺼리는 것에서 오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자기들 음식, 자기들 관행, 문화적 분위기를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 유지에 대한 갈망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화시장 골목의 세칭 ‘아프리카 거리’에는 적지 않은 한국인들의 분식점과 밥집들이 있지만, 그중 몇 개의 대형건물에는 주로 나이지리아 출신의 흑인들이 모이는 미용실과 이발소, 식당, 그리고 구멍가게와 옷가게들이 밀집해 있다. 부근의 여인숙에는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

9) 실제 한 할랄 식품점의 경우는 무슬림들을 위한 할랄 식품 재료를 주로 갖다놓았지만 서양 사람들도 음식재료로 많이 찾는 베이즐이나 올리브잎과 올리브기름, 양고기, 그리고 베트남 라면 등도 함께 차려놓아서 상업적 기회의 극대화를 꾀한다.

의 단기 숙박을 유치하는 숙소들이 가능하다(한건수, 2005: 220).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위 공간들에는 공식적으로 누구의 출입도 막는 문구나 규칙이 없다. 하지만 이곳들을 출입하는 백인들은 거의 없으며, 한국인들도 직접 음식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곳을 출입하지 않는다.

이화시장 골목의 이발소와 미용실에서는 간판에 커다란 그림으로 흑인 남성과 여성의 얼굴을 그려놓고 특히 심한 곱슬머리를 강조해 표현함으로써 이곳이 “흑인들이 안심하고 와서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그들의 전용공간임을 드러내고 있다. 나이지리아 식당 입구의 메뉴사진판에 그려있는 음식사진들에는 한국어 표기가 없고 아랍어 표기도 없다. 영어를 쓰는 나이지리아 특성을 반영해 영어 표기가 되어있는데, 영어를 쓰는 영미의 백인들, 그리고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흑인 병사들도 최근에는 이곳에 잘 오지 않는다.

조사자: 이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제보자: 서울 여러 군데서 오고, 경기도 전부, 어떤 때는 대전이나 대구에서도 옵니다. 주말에 일부러 친구 만나러 여기 와서 머리도 여기서 자르고. 우리(블랙 아프리카인들) 머리는 한국 미용실에서 못 자르니까.

조사자: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오나요?

제보자: [웃으며]... 그럴 일이 있다. 거기는 군대에서 알아서 다 하겠지. 그냥 여기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이나 비즈니스맨들이나 와요.

(Anthony: 남, 36세, 카메룬, 이발소 주인).

무슬림들은 특히 음식금기를 통해 경계선과 접점지대를 한꺼번에 관리한다. 사실 인도음식 전문점과 파키스탄, 중동 지역을 표방하는 할랄 음식¹⁰⁾ 전문점들의 경우 서양인과 동양인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며, 그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서양인과 한국인 손님들을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알콜 음료의 판매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음식 금기가 강한 이슬람을 신앙하는 중동과 남아시아 출신 무슬림들의 경우는 그에 비해 보다 강한 의무감에서 오로지 할랄 푸드를 취급하는 전문

10) 이슬람의 종교적 계율에 따라 준비한 음식. 일반적인 수준에서만 말하자면 채식에는 문제가 없으며 육식의 경우 특별한 도살과정을 거친 고기사용만 허용된다. 또 돼지고기와 알콜 음료의 사용은 금기시된다.

음식점만을 가게 되고, 그 밖의 음식점은 출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 있어 할랄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도살한 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음식은 금기사항이기 때문이다. 대신 무슬림이 아닌 손님들은 종교적 계율이 아니라 음식 맛을 찾아 할랄 푸드 음식점을 이용한다. 종교와 직접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고 관련되기도 하는 채식주의자들의 경우도 이태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음식을 찾을 수 있다.

할랄 음식점과 같은 경우 한 종교집단 구성원에게는 내적으로 경계가 그어져 있는 문화영토이지만 무슬림이 아닌 다른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다양한 음식선택지중의 하나로서 열려있는 곳이 된다. 적어도 할랄 음식점의 음주행위를 하지 않으며 할랄 음식을 받아들인다는 문화적 규칙에 따르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말이다.

이에 비해 약국이나 식료품점, 마트, 그리고 일반 음식점들은 인종간의 구분 경계선이 훨씬 약할 수밖에 없다. 손님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개인적인 움직임을 통한 개별적인 소비행위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종과 지역, 국적에 따른 구분의 선은 각 인종의 사람들이 갖는 종교에 따라 계층에 따라 그리고 상호작용이 벌어질 수 있는 형태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어떤 시공간 영역에서는 인종구분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어떤 시공간 영역에서는 인종이나 종족, 국적의 구분이 매우 흐릿하게 나타나거나 거의 보이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IV. 정리와 과제: 다문화 공간 내의 상호작용 양식

우리는 한국사회의 일부인 서울의 도시구역 중 가장 다문화적이고 다인종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는 2010년경 현재의 이태원 일대에서 각 문화적 영역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 그리고 각 구성원들이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집단의 멤버들과 어떤 방식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활하는지를 관찰하고자 했다.¹¹⁾

11) 현재 서울과 수도권외의 여러 지역이 형태는 다르지만 일종의 글로벌 빌리지(global village) 혹은 다문화적 상업지대를 구성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현미(2005)의 저작을 참고하기 바람.

현장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이태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영역 및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드러낸다. 먼저 염두에 둘 것은 한국사회가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독립에 이르는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국가성립의 근간으로 채택해야 했다는 사실이다. 그에 따라 이태원에 만들어진 '외국인들의 거리'는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외국인들을 유치하고 초청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세력에 의해 '점령된 땅'이라는 의식을 그 저변에 깔고 있다는 역사적 환경이 존재한다.

그것은 이태원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인구를 갖는 한국인들이 스스로 상업적 기회를 찾아 이태원으로 유입해 들어와 활동하며 돈을 벌었지만 동시에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해온 자신들의 경제적 활동, 특히 매매춘을 포함한 유흥업에서 출발한 이태원의 경제 문화적 배경에 대해 스스로도 부정적인 인식, 혹은 양가적인 인식을 하는 경우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미군부대의 비중이 줄어들고, 특히 상업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권 출신의 외국인 손님들과 상인들, 그리고 기지촌 시대의 기억과는 무관하게 다양한 외국문화 아이템을 소비하고자 하는 중상류층 한국인 손님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희석화 되고 있다. 대신 한국인들이 이전에 외국문화를 접하는 태도에서 나타났던 일방적인 선망과 열등감의 공존이 보다 거침없는 소비적 관행과 평등한 거래관계 주체로서의 의식을 갖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사회 자체가 전지구화에 따른 자본과 상품, 그리고 인구이동의 네트워크에 깊숙이 참여하면서 외국인 및 외국문화가 가장 깊숙하게 들어와 자리 잡고 있었던 이태원 일대에는 기존의 미군부대 문화 뿐 아니라 일본 관광객, 서구 비즈니스맨과 관광객, 그리고 무슬림 상인과 노동자, 아프리카계 상인들, 기타 다양한 문화권과 국적 출신의 인구가 자신들의 경제적 활동영역이나 정보와 문화를 공유하고 교환하는 일종의 문화영토들을 한 조각씩이라도 확보하고 유지하는 다문화시대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과 미국 군인들의 양대 축으로 진행되던 문화간 상호작용은 훨씬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이태원 거리의 상가들과 거주지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국적이 다양화되는 경향에 따라 예전에 비해 더 다국적적이고 다문화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면적인 인종차별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인종 간, 국적 간, 그리고 계층 간에 이전과 같은 경직된 경계선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다양한 커뮤니티들 간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면서 보여주는 상호작용 방식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호작용의 양적인 증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각자의 문화적 영토를 넘어서서 '침범'하지 않는 것이 다문화 지대의 현황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건이자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태원의 다양한 종족, 계층, 종교집단 구성원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최소한의 기능적 필요, 특히 상업적 거래관계와 의무적인 지원 등에 한정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여러 커뮤니티를 모두 아우르는 지역축제나 공동의 이벤트 혹은 공동체 의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보이지 않는다.¹²⁾ 또 그것을 위한 별도의 노력도 보이지 않으며 장려되지 않는다. 상호작용을 하거나 교차방문을 하더라도 어떤 정도 이상의 영역이 침범되었다고 느끼지 않도록 간섭을 회피하게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다만 경계 만들기 방식이 '차별'이나 '배제'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목계를 통해 덜 노골적인 실천방식들 혹은 전략을 취하는 것이 관건이다.

비공식적인 실천차원의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이태원 상업공간의 종족적, 국적적, 성적, 종교적 경계선은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계선의 유지와 불간섭의 원칙은 이태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종, 계층, 성, 종교, 기타 문화적 세력 사이에서 갈등을 줄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현 단계의 한국사회에서 이태원과 같은 공간은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문화구성원 및 커뮤니티들이 공존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관찰하기 위한 중요한 실험실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 현재까지 청취되고 관찰된 것들이 그대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의 당위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떤 통일된 문화적 규칙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통합'이나 전제의 공유를 마련하는 것도 당장 쉬운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름'이 새삼 부각되고, 그 다름이 유지된 채 다름 사이에서

12) 이태원 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상업적 축제는 존재하나 그것은 공동체적 행사와는 무관하며 각 업소의 상업적 이익추구에 한정된다.

상호작용의 밀도와 강도가 증가할 때 그것은 '이해'의 증대로 갈 수도 있지만 '갈등'의 확대로 발전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더 실질적인 모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다음 단계의 현장연구들과 관찰의 실험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실. 2004. "지구화시대 근대의 탈영토화된 공간으로서 이태원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한국여성연구원 편. 『변화하는 여성문화 움직이는 지구촌』. 서울: 푸른사상사.
- 김철호. 2010. "이태원의 역사적 전개." 서울역사박물관 편. 『이태원, 공간과 삶』. 서울역사박물관.
- 김현미. 2005. 『글로벌시대의 문화번역』. 서울: 또하나의 문화.
- 서울역사박물관 편. 2010. 『이태원, 공간과 삶』.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0. 『동명연혁고(洞名沿革攷)』 V: 龍山區編. 서울특별시 사편찬위원회.
- _____. 1996. 『서울육백년사』 제6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석철원. 1986. "쇼핑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정적 측면에서의 연구: 이태원 가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손정목. 1996.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연구』. 서울: 일지사.
- 송도영. 2006. "종교와 음식을 통한 도시공간의 문화적 네트워크: 이태원 지역 이슬람 음식점들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3(1): 68-136.
- 신주백. 2007. "용산과 일본군 용산기지의 변화(1884-1945)." 『서울학연구』 29: 189-218
- 야은숙. 1997. "관광특구 예정지로서 이태원 지역의 관광외식산업 진흥정책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박사논문.
- 오경석 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 용산구청. 2001. 『용산구지』.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 이기석. 2001. "20세기 서울의 도시성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편.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육정. 1994. "국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생활실태와 적응전략에 관한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 이혜은. 1992. "日帝侵略期 서울의 民族別 居住地 分布." 『향토(郷土)서울』 52: 105-155.
- 정은슬기. 2001. "우리나라 관광쇼핑상품의 시장현황과 패션문화상품에 대한 판매원의 의식조사 연구: 인사동과 이태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 정학진. 2000. "이태원 상업가로 매력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 최종일. 2003. "이태원 공간에 나타난 '아메리카나이제이션(Americanization)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 한건수. 2005. "국내 아프리카 이주노동자의 유입과정과 실태." 『아프리카학회지』 21: 215-239.
- 함한희. 1997. "외국인 노동자의 갈등과 적응." 『노동문제논집』 13(1): 99-129.
- 홍성철. 2007. 『유곽의 역사』. 서울: 페이퍼로드.
- 홍승표. 2008. "종교를 매개로 형성된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의 문화적 피난처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 홍준길. 2003. "외국인 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 Abu-Lughod, Janet L. 1980. *Rabat, Urban Apartheid in Morocco*.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ronon, William. 1991. *Nature's Metropolis: Chicago and the Great West*. New York: Norton & Co.
- Gupta, Narayani. 1981. *Delhi between Two Empires 1803-193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 Edward T. 1977. *Beyond Culture*. New York: Anchor Books.
- Le Tourneau, Roger. 1949. *Fès Avant le Protectorat*. Casablanca: Société Marocaine de Librairie et D'édition.
- Malka, Victor. 1991. *Les Juifs Sépharades*. Paris: P.U.F.
- Mumford, Lewis. 1989. *The City in History*. New York: Harcourt Inc.
- Sennett, Richard. 1996. *Flesh and Stone: The Body and the City in Western Civilization*. New York: Norton & Company.

- Abstract -

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an Urban Multicultural District of Korea: A Case Study of Itaewon, Seoul

Song, Doyoung*

This paper investigates formations of spatial boundaries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different communities of an urban district. The area observed in this case study is Itaewon district which is famous for its U.S. military base and the predominance of foreign (and, eventually, Western) culture at the heart of Seoul.

This study treated Itaewon district as a kind of 'multicultural urban space', and raised following questions: What was the process of the making of socio-cultural space? In which way different ethnic, social, and religious community members are employing territorialization of the spaces? How do they organize inter-communal communications in this relatively narrow and congested urban area?

With a field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data analysis, we could find that formal barriers among different ethnic and cultural communities are not evident as before. Main stream ideology in today's Korea proclaims a 'multiculturalism' as a kind of political correctness. In practice of spatial strategies, nevertheless, reciprocal interruption and frequency of communications among members of different communities are not the guarantee of "a successful multicultural urban district." Respect of the limits of cultural territory including different clothing practice, different cultural sensibility, different code of conducts

* Hanyang University / Cultural Anthropology

are, in fact, very difficult to tolerate for each community members.

Consequentl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growth of contact among members of different community is not always positive for the maintenance of urban multicultural district.

Key Words : City, Multiculturalism, Cultural Area, Communication,
Co-existence, Itaewon,

[2011. 07. 28 접수]

[2011. 08. 18 수정]

[2011. 11. 07 게재확정]

저자 송도영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인류학 석사(1986),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에서 역사인류학 박사학위(1993)를 받았다. 주요 관심분야는 이슬람 문화권의 도시화 과정, 한국 및 아시아 도시문화의 공간적 차원 등이다. 최근 주요논문으로는 “도시공간의 이슬람적 전형성에 관한 탈식민적 논의”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29집 3호(2009) 등이 있다. ■ E-mail : songdy@hanyang.ac.kr

